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임실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 1차 신청

임실군이 최근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 한부모 가족을 비롯해 소득 하위 70% 범위에 해당하는 주민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지원금은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 1차와 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먼저,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된다. 이 기간에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2차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되며, 1차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의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적용해 선별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 여부는 중앙정부

의 기준 확정에 따라 별도 안내될 계획이다.

지원금은 대상별로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되며, 2차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군민에게는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개인별로 진행되며, 4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20개 앱과 국민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알뜰서비스를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청 개시 이틀 전 대상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콜센터, ARS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연계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임실사랑상품권을 희망할 경우 전용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불카드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에는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5·0)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금요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에 한해 요일제가 해제된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에는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금은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계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2026년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아울러, 군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도움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찾아가는 신선식품 배송 탄력

순창군, 전국 유일 '식품사막 해소 신선식품 배송사업' 공모 선정

순창군이 행정안전부와 KIA가 공동 추진하는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신선식품 배송사업' 공모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며 냉동탑재 카고형 전기차(PV5) 2대와 국비 4천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모사업은 단순한 식료품 공급을 넘어, 고령화와 지역소멸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금요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에 한해 요일제가 해제된다.

특히 순창군은 가맹점 부족으로 인한 기본소득 활용 한계를 핵심 문제로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번 사업을 전략적으로 기획·대응했다. 그 결과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등 까다로운 심사를 모두 통과하며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공모 사업은 KIA의 카고형 전기차(PV5) 2대를 활용해 행정리 단위까지

직접 찾아가는 신선식품 배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교통 인프라 부족과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신선식품 접근이 어려운 이른바 '식품사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순창군은 배송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고령층을 위한 건강·돌봄 프로그램을 결합한 복합형 서비스를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먹거리 접근성 개선은 물론, 고령층의 건강관리와 정서적 돌봄까지 아우르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먼 단위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가맹점 부족으로 인한 장을 뚫고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공모 사업은 KIA의 카고형 전기차(PV5) 2대를 활용해 행정리 단위까지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농촌치유관광 활성화 콘텐츠개발사업 대상자 모집

남원시가 농업·농촌의 치유적 가치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농촌치유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치유농업 기반 체험형 관광 콘텐츠 발굴하고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총 2개소를 선정해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제작, 운영 역량 강화 등을 패키지로 집중지원 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사업 대상자의 프로그램 운영 의지와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선발, 선정된 농가에는 프로그램 기획과 상품화, 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 컨설팅 등을 제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참여 희망 농업인은 오는 5월 6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되며, 시는 서류심사와 농장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립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 운영

순창군립도서관이 순창군다함께돌봄센터와 협력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돌봄센터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독서활동과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 아동의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수업은 지난 21일 진행됐으며, 참여 아동들은 도서관을 방문해 도서 대출과 반납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사서와 함께 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독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책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약 4개월간 운영될 예정으로 도서관 견학 및 체험활동, 사서 및 작가와의 만남, 그림책 및 아동도서 함께 읽기 등 다양한 참여형 수업으로 구성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가 지난 21일 지역 상인 단체와 함께 '순창제 바가지요금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바가지요금 없는 순창제 만든다

남원시, 지역 상인 단체와 근절 결의대회 가져

남원시가 제9회 순창제 기간 중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1일 지역 상인 단체와 함께 '순창제 바가지요금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축제 방문객에게 신뢰받는 환경을 제공하고, 과도한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 상인들은 △사전 협의된 판매가격 준수 △가격표시제 준수 △바가지요금 근절 △진정 서비스 제공 등 주요 실천 수칙을 공유하며 강력한 이행 의지를 다졌다.

특히 상인 대표와 참석자들은 결의

문 낭독을 통해 "정해진 가격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직한 상거래를 실현해 공정한 축제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선언하며, 가격표 부스 전면 게시, 정량 준수, 품질 유지 등 세부 이행 사항을 재점검하며 관광객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시는 축제 기간인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물가점검반을 상시 운영, 점검반은 현장에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와 바가지요금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활동가 양성 나서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3월 14일과 4월 18일 두 차례 2026년 돌봄 품앗이 활동가 양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품앗이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품앗이 활동가에 관심 있는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부모 역할 강화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품앗이 활동 사례 공유 △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품앗이 그룹 대표 출신이자



'육아 품앗이 해볼래?'의 공동 저자인 최미영 강사가 초빙되어, 생생한 실천 사례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내실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응을 얻었다.

이어지는 체험 세션에서는 도자기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도왔으며, 참여자 간 소통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현재 남원시는 2019년부터 총 5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며, 지역 사회와 이웃이 함께 협력해 자녀를 돌보는 돌봄 품앗이 활동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놀이 공간 제공과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사회 발달에 기여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농가 적정시비 실천 캠페인·토양관리 교육

순창군은 지난 21일 친환경농업연구센터 2층 대강의실에서 농업·농촌혁신대 및 기초농업교육반 교육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적정시비 실천 캠페인 및 토양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비료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비료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블루베리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고품질 생산을 위한 토양관리 방법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먼저 교육생 대표가 적정시비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비료 절감과 과학적 영농 실천 의지를 다졌으며, 이어 토양 비료사용처방서 활용 방법과 토양검정의 중요성, 작물별 적정 비료 사용량에 대한 동영상 시청이 이뤄졌다.

특히, 현해남 교수를 초청해 블루베리 생육 특성에 맞는 토양관리와 효율적인 비료 사용 기술에 대한 전문 강



이를 진행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순창군은 향후에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실용 중심 교육과 현장지도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